

지역 소식통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기획자 양성교육 종료

지난 22일 매화풍류 브랜드마을 도시기획자 양성교육이 영상기획, 문화해설사 컨텐츠 기획, 축제기획, 마을부여 상품기획의 4개 주제 교육 안에서 2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막을 내렸다.

매화풍류 브랜드마을 도시기획자 양성교육은 매화풍류마을의 컨텐츠를 기획하는 기획자와 직접 활동할 주민 활동가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매화풍류마을의 컨텐츠를 주민이 활용해 진행할 수 있는 기획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부안의 자원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였고 실천사업을 통한 시범운영으로 실행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신관 객실 리모델링 완료

고창군이 '2023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선운산유스호스텔 신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손님 맞이에 나섰다.

유스호스텔은 최근 여행 수요 및 MZ세대의 생활 패턴에 맞춰 신관 객실 전체를 침대방으로 전면교체했다. 6500만원 사업비를 들여 2인 트윈침대 174개, 2인 더블침대 2개, 1인 싱글침대 2개, 총 212개 객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침대방과 온돌방을 각각 준비해 숙박객들의 기호에 맞게 여행기간 동안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현재 선운산유스호스텔은 총 53개(본관 온돌방 32개, 신관 침대방 21개)객실에 24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단체 관광객들에게 식사도 제공하는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춰 가족단위 뿐만 아니라 단체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고창군청 이길수 인재양성과장은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벚꽃축제 4년만에 열린다

31~4월 4일 축하공연·체험·먹거리장터 등 행사 '풍성'

화려한 정읍 봄날의 서막을 올리는 벚꽃축제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정읍시는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짐에 따라 2023 정읍 벚꽃축제를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4월 1일 저녁 7시 정읍천 어린이휴식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에서는 정읍시 홍보대사인 김태연·방서희를 비롯해 문화·정읍·조연비 등 유명 가수와 전북 무형문화재 송재영 명창, 비보이 크루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야간

경관조명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에 힘썼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정읍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랜드길과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축제장 곳곳에 이색적인 포토존과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들과 화합을 도모하는 떡 모자이크 이벤트를 비롯해 정읍의 특산물인 떡·차·면·술 체험 등 정읍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다.

축제장 곳곳에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푸드트럭과 음식 장터, 농·특산물 먹거리장터 등 35개 부스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응동이 고향인 국가무형



문화재 김대균 명인의 줄타기 공연과 정읍시립국악단·농악단 축하공연, 읍·면·동 농악 경연대회, 제27회 정읍예술제 등의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추억이 물씬 느껴지는 7080 레트로 체험과 화려한 벚꽃을 상공에서 볼 수 있는 벚꽃하늘 열기구 체험, 어린이들을 위한 벚꽃레이싱 범퍼카 체험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어둡고 칙칙했던 군청 복도를 미술관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했다.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어서 박물관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예술 작품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예술이 일상 속으로'

고창군청, 갤러리로 변신... 복도마다 미술작품 가득

고창군이 어둡고 칙칙했던 군청 복도를 미술관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했다.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어서 박물관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예술 작품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지난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1·2층 복도에 고창의 유명 작가들의 회화, 서화 등 모두 4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고창읍성과 청보리밭, 선운산 꽃무릇 등 아름다운 자연이 담긴 그림들이 전 시대를 마치고 넓은 초원에 나와 있는 듯한 시원함을 안겨 주고 있다. 또 한쪽에는 합천 붓놀이 떡의 농담과 여백의 미가 어우러진 서예작품 등도 전시되어 힐링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초대받은 듯한 기분으로 들어서서 작품을 감상하면 예술은 접근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친근한 일상이 된

다. 청사 복도가 갤러리로 변신을 꾀하자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와 함께 격조 있는 미술관을 연상케 하고 있다.

군은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복도에 새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어느 미술관 못지않게 꾸몄다. 여기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격을 한단계 끌어올렸다.

군은 주기적으로 전시작품을 바꿔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관내 예술단체와 예술인이 전시를 희망할 경우 기획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군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좋은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드론 이용 항공방제로 AI 차단 총력 대응

3월 말까지 발생농장 주변 저수지 드론 방제

정읍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성면 지역에 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AI가 발생(전국 71호)했고 철새들이 정읍지역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 그 어느 때



3월 말까지 약 10일간 드론을 추가 투입해 항공방제를 추진한다

보다 방역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또한 정읍지역은 인근 고창·부안 지역과 같이 겨울 철새가 머무르기 좋은 환경적 요인으로 4월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 방역 기간인 3월 말까지 살수차와 방역방제기를 이용해 AI 취약 농종인 오리, 신란계 농장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또한 축협공동방제단과 함께 가금 농가와 농가 진입로, 마을 입구 등을 소독하며 차량으로부터 전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금 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시설과 소독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출입 인원·차량 통제 등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예찰하고 방역 수칙 교육·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전략 작물 직불제 논 하계 조사료 신청·접수

정읍시가 올해부터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발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쌀에 편중된 과잉생산 구조를 바로잡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재배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전략 작물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농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략 작물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

불금에 더해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기본 논 활용 직불 대상(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에 겨울철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 콩·가뭄살은 100만원, 하계 조사료(옥수수, 수단지라스 등)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로 복지 실현

정읍시는 병원 치료 가능한 장기 입원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22일 전라북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합동 중재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합동 중재회의는 병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속식 목적 장기입원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장기입원자를 파악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삼고을 요양병원과 정다운 요양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시와 전북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개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부적절한 입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원을 유도해 가정에서 외래 이용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등 장기입원자가 합리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강 관리가 어려운 대상자는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등 지원 연계를 통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적정 진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장기 입원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